

익산시, 미세먼지 감축 대책 추진

친환경차 보급 지원·다량발생원 특별관리 강화·도시 숲 조성 등... 발생 원인 규명도

익산시는 "최근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시민이 편하게 숨쉴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의 주범인 자동차 미세먼지저감을 위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12대에 구입보조금 2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노후경유차 106대에 조기폐차 보조금 1억1,550만원을 지원했다. 현재 이륜전기차 67대 구입보조금 1억6,750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시내버스에 천연가스버스 15대 구입보조금 1억8,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을 구

축하기 위해 11개소 충전시설 설치장소를 선정 중에 있다. 성능 개선된 전기차에 대한 시민인식전환과 관심촉구를 위해 각종행사시 전기자동차 시승과 전시회를 추진해 시민들의 전기차 체험을 통한 체감률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봄철 도로 비산먼지저감을 위하여 도로 청소차량 운행거리를 4km에서 12km로 증가하여 운행하고 건설공사장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한다. 토목공사 및 건설폐기물 집하장을 집중 관리하는 등 미세먼지 다량발생원 특별관리를 강화하며 미세먼지다량배출사업장 위주 중점 관리한다. 특히 소각장, 전복집단에너지,

상공에너지 등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업소 특별 관리로 산업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는 등 자동차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며 식재수목 증가로 미세먼지 정화와 도시열섬현상이 저감될 수 있도록 수목4만수, 화초 60만수를 식재하고 헌수, 헌금 모금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숲조성으로 민·관·기업이 함께하는 깨끗한 공기 익산구축에 힘쓰고 있다.

현재 익산시의 측정소 미세먼지측정치가 높게 측정되고 있는 실정이나 팔봉동측정소는 공업지역에 위치하여 고농도로 측정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타 지역의 일반 주거지역 측정소와 단순히 측정치로 비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의

60%가 밀집되어 있는 충남을 우회해 특별한 대기오염배출원이 없는 익산이 미세먼지 고농도지역으로 도마에 오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측정장비의 오차확인을 위해 팔봉동 및 모현동 미세먼지측정장비(PM-10)에 대하여 등가성평가실시로 측정치의 정확성을 검토할 계획이며,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2017. 1. 1.~2018. 12. 31.까지 '익산시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익산시의 정확한 미세먼지 발생원과 성분 분석으로 원인 규명을 통하여 시에 맞는 맞춤형 미세먼지저감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개항장터' 내일 운영

근대역사박물관 '차 없는 거리'에서 10월21일까지 매주 토요일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박물관 '차 없는 거리'에서 개항장터를 운영한다.

박물관 개항장터는 원도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근대 시간여행마음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4년째 이어오고 있는 군산 유일의 상설 시민 장터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개항장터는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재활용 가능물건들과 시민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아빠다 프리마켓' 형태로 운영되며 참여는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또한 개항장터에서는 박물관 거리문화공연과 연계한 '타악 공화국 율소리'의 사물놀이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으로 장터에 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 인근의 근대항구 일대를 과거와 현재, 시민과 관광객이 공존하고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하



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지난해 관람객 100만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지난 4월까지 25만명 이상 관람객이 방문하여 군산 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근대역사박물관의 개항장터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마지막 주 제외) 운영될 계획으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군산=김광근 기자

군산시 조촌동, 경로당 맞춤형 복지 소문내기 사업 추진

군산시 조촌동(동장 주병선)에서는 맞춤형 복지 지역특화사업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에 '경로당 맞춤형 복지 소문내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복지사업을 홍보하고 대상자를 현장에서 발굴하여 적절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추진된다.

동에서는 사업의 첫 번째로 조촌경로당을 찾아 기초연금, 긴급복지, 노인일자리, 복지사책 홍보, 현장 견학의 사항 의견 수렴 및 단순 민원 처리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했다. /군산=장 현 기자

군산야외수영장, 봄철 어린이놀이시설 운영 6월 24일까지

군산시는 지난해 7월 개장한 군산야외수영장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수영장 개장 전까지 운영한다.

군산야외수영장은 그동안 어린이 놀이공간이 부족했던 군산지역 여건과 이례적인 폭염 속에 개장 첫째 6만 5,000여명이 이용하는 등 시민들에게 도심 속 새로운 피서지로 각광을 받았다.

시에서는 이런 야외 수영장 공간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야외수영장 성인을 내어 어린이 축구장 및 농구장, 광장은 에어바운스를 활용한 인공암장, 미끄럼틀, 볼풀장, 트램펄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입장료는 야외수영장이용료와 동일한 가격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야외활동 및 체험 공간 부족으로 타 지역의 놀이시설을



군산시는 지난해 7월 개장한 군산야외수영장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수영장 개장 전까지 운영한다.

이용해야 했던 시민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편안하게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놀이시설은 오늘 개장에서 6월 24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군산=장 현 기자

익산 낭산배수지 건설공사 추진

익산시가 북부권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낭산배수지 건설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금마금수구역 내 배수지 시설용량부족과 북부권 면지역 급수구역 전반의 수압저하 현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낭산배수지 건설공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실시계획용역을 이달 11일 착수했다. 용역은 내년 12월에 마무리될 계획이다.

총사업비 80억 정도 소요되는 이번 사업을 위해 시는 낭산면 성남리 신정저수지 인근에 저수용량 8,200㎡ 규모의 거점 배수지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송·배수관로 2km를 부설해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취약계층 보호 우수 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

군산시가 16~17년 전국 단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기간 동안 취약계층 보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34만명에 대해 지원을 완료했으며, 읍면동 복지허브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을 통해 복지소외계

층 발굴·지원의 성과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군산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 1,179가구를 발굴하여 2,889건 16억 여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동절기에는 지역사회보호체계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군산한울타리발달단 운용 강화 및 방문형서비스사업기관 등 사회복지 유관기관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시 수도사업소·보건소, 경찰서, 우체국, 한국전력, 군산도시가스

등에 근무하는 가정 방문 종사원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안내하여 민관협력의 굳건한 토대 위에 다양한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시의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은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대처방안으로 높게 평가받아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으로까지 이어졌다. /군산=장 현 기자



익산 모현동 주민자치위, 휴경지에 고구마 등 심어

익산시 모현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길우)는 '휴경지 밭작물 재배' 사업을 위해 지난 10일 오산면 가창마을 120평의 밭에다 고구마, 단호박 등을 심었다.

이번 사업은 익산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주민 스스로 참여해 내 지역, 내 이웃을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모현동 주민자치위원회 20여명과 시의원, 담당공무원들은 호미, 삽 등을 이용해 손수 밭을 일구어 고구마, 단호박, 고추, 가지, 토마토 모종을 정성들어 심었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오는 10월까지 주말을 이용해 잡초제거와 물주기 등을 하며 작물을 가꾼다. 가을에는 고구마, 단호박 등을 수확, 판매해 수익금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쓸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